

컨테이너 대형화 “운송비 하락 기대”

2007년 7500TEU급 184척으로 급증 ... 선박 과잉으로 가격경쟁 불가피

세계 유명 해운선사들이 컨테이너선 대형화를 급속히 추진함에 따라 선박 과잉문제가 정기선 시장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2005년까지 정기선 시장에서 운항중인 7500TEU급 이상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83척으로 2004년의 49척에 비해 76%가 증가했으며, 5000TEU급 이상의 대형 컨테이너선도 320척에서 394척으로 늘었다.

더구나 2006년에는 7500TEU급 이상이 138척으로 늘어나고, 2007년에는 184척으로 급증하는 등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조사회사인 BRS-Alphaliner도 2005년 세계 컨테이너선대 선박규모를 2004년 대비 11.9% 증가한 828만 TEU로 분석했으며, 클락슨은 11.2% 증가한 807만TEU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BRS는 컨테이너선의 대형화로 인해 세계 컨테이너선대가 2007년과 2008년 각각 연평균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선박 과잉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대형화의 영향으로 세계 100TEU급 이상 컨테이너선의 척당 평균 적재능력은 1990년 1370TEU에서 2000년에는 1716TEU로 늘었으며, 2005년에는 척당 2172TEU로 처음으로 2000TEU를 돌파했다.

이에 따라 국내 대형 선사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한진해운은 용선을 포함해 5000-7400TEU급 22척에 7500TEU급 이상이 5척으로, 2006년 6500TEU급 3척을 확보하고 1만TEU급도 발주할 계획이다.

현대상선은 7500TEU급 이상 컨테이너선이 없지만 5000TEU급 이상이 13척으로 2006년 6800TEU급 5척을 보강하고 2008년에 8600TEU급 5척을 인도받아 선대를 대형화할 방침이다.

중국 수요증가 등으로 물동량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범람으로 인한 선박 과잉이 가격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 채산성 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6/01/09>